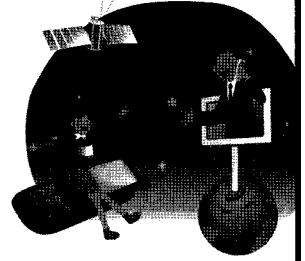


# 모바일 리더 실현



지식경제부는 3월 19일(금)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업계, 학계, 연구계 및 소비자모임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경환 장관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80년대부터 미국, 유럽 기업들이 선점해 왔던 모바일 산업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2위의 휴대폰 제조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09년 전세계 휴대폰 판매량 11억4천만대 중 국내3사 판매량이 3억5천만대로 세계인들이 구입한 휴대폰 3대 중 1대는 국내3사 제품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스마트폰 대처가 미흡하여 모바일 시대에는 IT강국 위상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며, 그 이유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폐쇄성 외에도 민간의 모바일SW 대응능력 부족을 초래한 지난 정부의 WIPI 탑재 의무화 정책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하였다.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는 '02년에 첫 개발되어 '05.4월부터 국내 휴대폰에 탑재 의무화되었으며 '09.4월에 탑재 의무화 폐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가장 큰 영향은 모바일 산업과 PC

산업을 본격 경쟁하는 상황을 촉발한 것이라며 스마트폰이 TV, PC 등 다양한 전자제품과 연동되는 유무선 통합의 모바일 응용서비스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향후 모바일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라며 기존 유선서비스 경쟁력과 신속한 대응능력 등 강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모바일 시장에서 조만간 최고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모바일 산업의 강점으로 글로벌 공급망(SCM)과 현지 밀착형 사업전략에 의한 신속한 휴대폰 모델 출시, 인터넷포탈, 온라인게임 등 기존 유선서비스 경쟁력과 WiBro 등 통신망 경쟁력이다.

정만기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정책발표에서 글로벌 모바일 강국 도약을 위해 향후 5년간 수요자 참여형 R&D와 인프라확충 등 민관 공동프로젝트에 총 7,600억원 규모의 투자소요 제시하였다.

먼저, R&D분야에서는 취약한 무선망 시스템 개발, 모바일 기기 핵심부품(베이스밴드 모뎀 등) 국산화,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모바일SW 발굴에 집중하여 '14년까지 총 5,981억원이 필요하다.

베이스밴드 모뎀이란 데이터를 특정 통신방식에 따라 무선송수신이 가능하도록 변환해 주는 부품이다.

특히, 무선망 시스템은 WiBro 성공사례와 같이 △

**원천기술 개발 강화**

원·근거리 무선접속방식, 무선망을 통한 데이터 전송방식 등을 개발

• '10~'14년까지 원천기술 개발에 총 1,412억원 투입('10년 211억원) 필요

**표준특허 확보 지원**

개발한 원천기술을 표준기고, 표준회의 참가 등을 통해 국제표준으로 채택

- 중소기업, 학계의 국제표준 활동 지원
- 한·중·일 공조를 통한 표준 우호세력 확보

**상용제품 신속 개발**

표준기술을 적용하여 칩셋, 통신장비, 계측기 등의 제품 개발

• 4세대 이동통신 상용제품 개발에 '11~'13년 민·관 합동 600억원 투입 추진

**국내 통신서비스에 과감히 채택하여 해외진출의 기반 마련**

※ WiBro 개발시에도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 성공한 바 있음

원천기술 개발 → △국제표준 채택 → △상용제품 신속 개발 → △국내서비스 도입으로 이어지는 전략을 지속 추진하여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선망, 기기, SW, 서비스 등 모바일 산업 4계층의 대표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대형 모바일 서비스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한다. ETRI 등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단말기 제조사, 이통사, 인터넷포탈 등이 모두 참여한다.

한편, 국내 휴대폰 제조 3사는 '10년 R&D에 총 3조 1,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09년 3조 500억원)

아울러, 모바일 지속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차세대 휴대폰 종합시험센터, 미래 모바일산업 리서치랩, 산학연 공동 대응체제 등을 구축하기로 하고 '14년까지 총 1,620억원 필요하다.

모바일 기기 개발 촉진 및 수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업 집중 지역에 「차세대 휴대폰 종합시험센터」 구축하고, 소비자의 이용형태 등을 토대로 모바일시장의 중장기적 진화방향을 연구하는 민·관·공동의 「미래 모바일산업 리서치랩」(가칭) 구축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변화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모바일 산업 관련 산학연 공동의

**【 대형 모바일 서비스 프로젝트 주요 추진방안 】**

계층 구분	주요 내용	개발 주체
콘텐츠 응용서비스	유무선 통합 킬러서비스 개발	이동통신사, 인터넷포탈 등
SW플랫폼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전자제품 간 연동, 개방형 운영체제 등	정부출연연구소, 산업체 공동
하드웨어	다양한 통신방식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	단말기 제조사(가전 제조사 참여)
네트워크	이동통신, WiBro, WiFi 등 무선망과 초고속 유선망 통합 활용	정부출연연구소, 산업체 공동

즉각적인 대응시스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시장이 모바일 테스트베드 기능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2015년에는 글로벌 모바일 No.1이 될 것을 기대한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선망에 대해 망 접근성 개선, 망 고도화 등을 집중 건의하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스마트폰 요금제 개발, 스마트폰 검색엔진 변경 등을 제기하였으며, 엠택비전, 로직플랜트 등 중소기업들은 우수인력 확보, 주요 부품 R&D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모바일 산업 발전 전략을 살펴보면, 모바일산업의 성립요건으로 무선망 시스템, 무선통신 서비스, 모바일 기기, 모바일 SW, 모바일 콘텐츠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성립되는 산업이다.

무선망시스템은 할당된 주파수와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전파에 실어 송수신하는 무선통신장비로 시스템 제조사가 공급한다.

\* 주파수는 사용하는 대역(KHz, MHz, GHz)에 따라 전파의 속도와 도달거리 등 무선통신의 특성이 달라지므로 통신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사용대역 할당이 필요하다.

무선통신방식은 ①AM/FM라디오·TV 등의 單方向, 一對多 특성을 갖는 방송통신, ②가정용 무선전화, 무선랜(LAN) 등의 근거리 무선통신, ③이동전화, WiBro 등 고속 이동 중에도 통신이 가능한 이동통신, ④위성을 이용한 원거리 통신인 위성통신이 있다.

무선통신서비스는 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고

무선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특정방식의 무선 통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바일 기기는 이동통신, WiBro, 무선랜과 같은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소형 휴대기기로 휴대폰이 대표적이며 기기 제조사가 공급하는 것이다. 기능폰, 스마트폰 등의 휴대폰과 e-북, 스마트북, 태블릿PC 등의 각종 휴대기기이다.

모바일SW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SW로 운영체제, 미들웨어 등의 SW플랫폼과 응용 SW로 구성되며, SW개발사가 공급하는 것이다.

운영체제(OS)는 모바일 기기의 각종 하드웨어적 동작을 제어해 주는 SW이고, 미들웨어(M/W)는 각종 응용SW가 운영체제 상에서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해 주는 SW이며, 응용 SW(App.)는 모바일 기기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SW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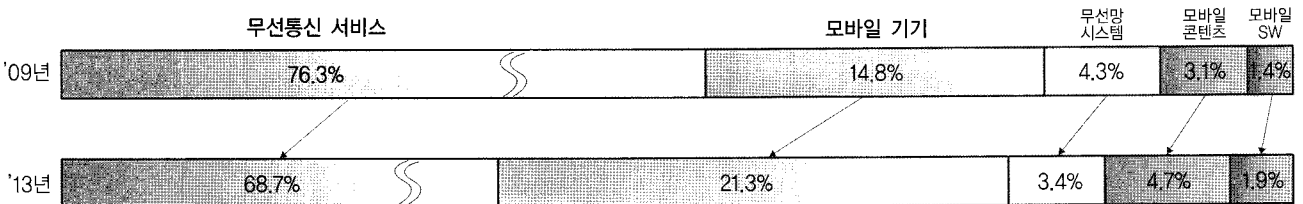
모바일 콘텐츠 및 응용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와 기능을 의미하여 콘텐츠공급사(CP)가 제공하는 것이다.

모바일 산업의 특징으로는, 현재 시장규모도 크며,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모바일 산업 자체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09년 현재 1조2,022억달러로 추산되며, '13년에 1조4,806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09년 257억달러에서 '12년 273억달러로 증가 예상이다.

특히, '13년에도 무선통신 서비스가 68.7%(1조165억달러)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모바일 기기와 콘텐츠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IT를 타 산업과 융합시켜 새





로운 산업을 유발하는 촉매제로서 모바일 산업 성장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산업에서 요구되는 모바일 SW·콘텐츠 시장은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에 따라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진입장벽이 높고, 시장의 페러다임 변화가 매우 빠른 산업이다. 대량생산에 따른 설비 투자비용은 타 산업에 비해 낮으나 R&D 비용 부담이 커 기술적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설비 투자비용은 반도체(32,760억원), 디스플레이(54,835억원), 정보통신(7,956억원)이다. R&D 투자규모는 반도체(25,000억원), 디스플레이(32,030억원), 정보통신(28,660억원)이다.

기술적 진보가 빨라 짧은 Life-Cycle과 잦은 교체수요를 갖고 있어 Time-to-Market을 위해 SCM(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큰 산업이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산업이다. 주파수라는 한정된 자원과 음성통신이라는 주된 용도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산업의 주도권을 갖고 규제정책의 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최근 스마트폰 확산으로 산업주도권에 조금씩 변화 발생 시작한다.

국내 모바일 산업은 '96년 CDMA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WiBro 등 신기술을 최초 개발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휴대폰 산업은 HW경쟁력을 활용한 신속한 시장 대응으로 '09년 시장점유율 30%를 돌파하면서 세계 2위의 경쟁력 보유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무선 데이터통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WiBro, LTE 등 초고속 무선망으로의 전환과 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노력 가속화한다. LTE(Long Term Evolution)이란 3세대인 WCDMA를 발전시킨 3.9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4세대 이동통신이란 최대 600Mbps까지 무선전송이 가능한 이동통신 기술로 LTE-advanced와 WiBro-advanced 기술이 결합 중이며 '11.5월 표준화 예정이다.

스마트폰의 급성장은 모바일 산업에 SW와 콘텐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모바일 산업과 PC 산업의 본격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노키아-인텔 연합('09.6), 인텔-구글 협력('09.7), MS-노키아 제휴('09.8), 주요 통신사-제조사의 글로벌 앱스토어 구축('10.2) 등 모바일 분야의 기업간 합종연횡 가속화된다.

모바일 기기와 TV, PC 등 전자제품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되는 유무선 통합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 심화 전망이다. 통신업체의 응용서비스 진출 확대, 구글 등 인터넷업체의 무선분야 서비스 확충, 휴대폰 제조사의 유무선 통합기기 개발 등 다양한 시도 진행 중이다.

고속의 유무선 통합망을 활용할 수 있는 킬러서비스를 개발하고 비즈니스모델화 하는 업체가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 제공 전망이다. 다양한 스마트폰 모델 출시, 자체 플랫폼 확보 등으로 대응 중이나, 취약한 SW경쟁력으로 단순 모바일 기기 제조국가로 남을 우려가 있다. 국내업체들은 3월, 5월 안드로이드폰 출시 등 금년 중 60여 모델의 스마트폰 출시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유선서비스의 장점, 신속한 시장 대응 능력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시장 선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야별 취약요인 분석 및 과제를 보면, 초고속 유선망 등 IT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세계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모바일 산업에서는 과거 신기술 적용을 주도하던 테스트베드로서의 지위를 점차 상실하고 있다.

모바일 산업의 추격자(follower)로서 HW 중심의 Copycat 전략만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그래서, 장기적 통찰에 기반하여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모

구분	주요 현황	주요 기업	경쟁력 수준
무선망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CDMA 전환, WiBro 확산, LTE*, 4세대 등으로 수요 지속 증가</li> <li>* LTE(Long Term Evolution) : 3.9세대 이동통신 기술</li> <li>• M&amp;A로 인한 선도기업 영향력 확대와 Huawei 등 중국기업 급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 삼성(WiBro), 이노와이어리스(계측기)</li> <li>• 해외 : Ericsson(스), NSN(핀?독), Huawei(중), Alcatel-Lucent(미), Motorola(미), Nortel(캐), ZTE(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 취약</li> <li>• WiBro 등 일부 경쟁력</li> </ul>
무선통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무선 통합, 스마트폰 확산 등으로 데이터 통신 비중 증대</li> <li>• 고속 데이터 통신을 위한 WiBro, LTE로의 전환과 4세대 표준경쟁 치열</li> <li>• 해외 선도기업들의 M&amp;A, 지분확대 등을 통한 글로벌화/대형화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 SKT, KT, LGT</li> <li>• 해외 : Vodafone(영), T-Mobile(독), Singtel(싱), Telefonica(스), Verizon(미), AT&amp;T(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통신 서비스 경쟁력 취약</li> </ul>
모바일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kia, 삼성, LG의 3강 체제가 확고해지고 스마트폰 업체 급성장</li> <li>• 스마트폰, e-북 등 다양한 기기가 속속 등장하고 PC산업과 경계 모호</li> <li>• 제품 차별화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과 다기능 고성능 부품 중요성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 삼성, LG, 팬택, WiBro단말 중소기업</li> <li>• 해외 : Nokia(핀), Sony-Ericsson(일·스), Motorola(미), RIM(캐), Apple(미), HTC(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기능폰까지는 우수</li> <li>• 스마트폰은 취약</li> </ul>
모바일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용의 다양한 운영체제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혼란한 상황</li> <li>• 오픈마켓 활성화로 응용SW 개발이 촉진되고, 산업 주도권 변화 발생</li> <li>• 악성코드, DDos 공격, 모바일 해킹 등 보안 위협요소 크게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 삼성(바다, LiMo), 중소 SW 기업(로직플랫폼, 인프라웨어 등)</li> <li>• 해외 : MS(윈도우), Google(안드로이드), Apple(아이폰), RIM(블랙베리), Palm(팜), Opera SW(오페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용 SW 플랫폼 매우 취약</li> </ul>
모바일 콘텐츠 응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기반, 여가활용, 업무처리를 위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 중</li> <li>• 사용자 라이프스타일 변화 초래</li> <li>•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소통 강화에 스마트폰 활용 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 NHN·다음(인터넷포탈), 엔씨소프트(온라인게임)</li> <li>• 해외 : Google(검색), Amazon(온라인서점), Youtube(동영상), eBay(쇼핑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서비스 경쟁력 보유</li> </ul>

바일 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속 채택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한 것이다.

무선망 시스템에 있어, WiBro시스템과 계측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취약하여 국내의 시장을 해외 기업들이 거의 선점하고 있다. Ericsson, NSN, Huawei 등 7대 메이저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 차지한다.

통신방식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 표준 확보가 부족하여 전통적인 선도기업들의 높은 기술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WCDMA 표준 특허를 Ericsson(30%), Nokia(21%), Qualcomm(20%),

Motorola(14%)가 85% 선점한다.

중국과 같이 내수시장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중국의 Huawei는 가격경쟁력과 특화 마케팅으로 '06년 6위에서 '08년 3위(18.1%)로 도약했다.

향후과제로 4세대 이동통신 등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및 표준 확보를 통해 상용제품을 신속히 개발하여 국내 통신서비스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

무선통신 서비스에 있어, 국내 시장은 유지해 왔으나 최근 스마트폰의 급성장으로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 등을 통한 마케팅 경쟁에 치중하고 데이터통신 기반의 다양한 신기술 융합서비스 개발에 미온적이다. '09년 국가별 데이터통신 매출 비중은 일본 44%, 호주 36%, 독일 28%, 한국 22%이다.

과감한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 신흥시장 개척보다는 국내에만 안주한다. Vodafone은 '07년에 업체인수와 지분확보로 체코, 루마니아, 남아공, 터키, 이집트, 인도 등 진출하였다.

향후과제로 무선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다양한 신기술 융합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전체 무선통신 시장을 키우고, 개발된 신기술 융합서비스를 수출상품화하여 해외 진출하는 것이다.

모바일 기기에 있어, HW경쟁력만 요구되던 고기능 폰까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점하였으나, 스마트폰에서는 취약점을 노출한다. '09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Nokia 41.1%, RIM 19.4%, Apple 14.4%, 삼성 3.4%, LG 0.3%이다.

국내기업들은 지속적인 HW기능개선, 현지밀착형 사업전략, 글로벌 공급망(SCM) 구축 등을 통해 시장 요구에 신속히 대응한다.

다만, 자체 SW플랫폼 확보와 사용자 요구에 근거한 혁신적 기기 개발 미흡, 핵심부품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의 문제를 내포한다. 휴대폰 제조원가의 25%를 차지하는 베이스밴드 모뎀 등 핵심부품은 전량 수입한다.

향후과제로 차세대 핵심부품 국산화 및 제품차별화 기술 확보로 HW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용자와 소통 강화, SW플랫폼 경쟁력 제고 시급한 것이다.

모바일SW에 있어, 스마트폰용 SW플랫폼에서 해외 제품이 모두 선점 중이며, 새로운 유통구조인 오픈마켓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응용SW 분야도 취약하다.

장기간 지속된 WIPI 탑재 의무화로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SW플랫폼에 대한 대응기회 상실한다. 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는 '02년에 첫 개발되어 '05.4월부터 국내 휴대폰에 탑재 의무화되었으며 '09.4월에 탑재 의무화 폐지되었다.

일정한 수익보장 등 SW개발사의 지속적인 성장환경 미비하다. 향후과제로 여러 SW플랫폼을 위한 다양한 응용SW를 개발을 촉진하고, 독자적인 SW플랫폼을 확보하여 다양한 전자제품과 연동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하는 것이다.

모바일 콘텐츠 및 응용서비스에 있어, TM마트폰 콘텐츠 및 응용서비스에서 현재 상당히 취약하나 유선인터넷의 다양한 콘텐츠와 게임, 인터넷포털 등 유선서비스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이 크다.

다만, 비싼 요금제, 무선망에 대한 정보 부족, 수익 배분 문제 등으로 다양한 유선서비스가 모바일용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과제로 기존 유선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등의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합리적 요금제의 도입을 통한 무선데이터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향후 대책방안으로는, 취약한 부품·기기 및 SW에 대한 R&D 집중 추진한다. 무선망 시스템에서, 무선인터넷 활성화, 4세대 이동통신 도입 등 데이터통신의 급증에 대비해 원천기술 개발, 표준화 및 상용제품 개발 추진한다. 「유·무선망 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크 산

업 발전전략」을 수립('10.6월)한다.

모바일 기기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인 베이스밴드 모뎀을 국산화하고, 저전력, 사용자인터페이스 등 제품차별화 기술 중점개발한다.

베이스밴드 모뎀이란: 데이터를 특정 통신방식에 따라 무선송수신이 가능하도록 변환해 주는 부품이고, 저전력 기술(고효율 전력증폭기, 무선충전 등), 사용자인터페이스 기술(3D, 오감인식 등)이다.

4세대 이동통신용 베이스밴드 모뎀 개발에 상용 칩과 단말기 제작업체를 각각 참여시켜 성공사례 확보 및 적용 확산한다. 4세대용 베이스밴드 모뎀 개발을 포함한 다중통신(WCDMA, LTE, 4세대, WiBro 등) 모뎀칩 개발에 '10~'14년 정부 700억원, 민간 530억원 투입 추진한다.

제품차별화 기술은 차세대컴퓨팅, 부품소재 등 타분야와의 공동기획을 통해 적용가능하고 참신한 기술을 지속 발굴한다. '10년에 저전력은 3개 과제 51억원, 사용자인터페이스는 2개 과제 55억원 투입한다. 카메라, 네비게이션, 동영상 등 기능이 많아질수록 차세대

휴대폰의 배터리 수명이 중요하다.

모바일 SW에서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모바일 응용 SW 발굴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웹(web) OS 등 새로운 개념의 자체 SW플랫폼 확보 추진한다.

웹 OS란 각종 인터넷 응용서비스를 별도 설치없이 단말기에서 바로 이용가능한 운영체제이다. 모바일 SW플랫폼 개발에 '10년 10개 과제(218억원)를 포함하여 '14년까지 1,100억원 이상 투입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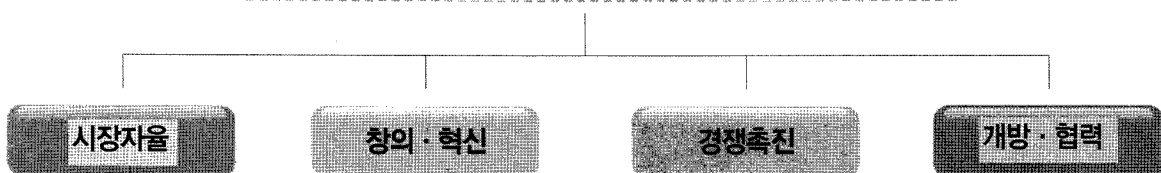
무선망, 기기, SW, 서비스 등 모바일 산업 4계층의 대표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대형 모바일 서비스 프로젝트 추진 검토한다. 컨소시엄 형태로 프로젝트당 연간 100억원 규모의 1~2년 단기로 추진한다.

고속의 WiBro망 활용,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전자제품의 연동 등 기존 HW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킬러서비스 기술 확보하고, 기업간 수직적 연계 활성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촉진한다.

모바일 기기 개발 촉진 및 수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업 집중 지역(수도권, 경북 구미)에 「차세대 휴대폰 종합시험센터」 구축한다.

## [ 2015년 모바일 세계 최강국 달성 ]

- ◆ 시장자율에 의한 창의적 혁신역량 강화
- ◆ 취약한 부분에 대한 R&D 집중 투자
- ◆ 유무선 통합 시대에 걸맞게 잔존 규제 해소
- ◆ 모바일 경쟁환경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경북 구미의 종합시험센터는 중국의 3세대 이동통신인 TD-SCDMA 등 차세대 수출품 필드테스트를 위해 '10~'14년 총 1,350억원(국비 870억원) 투입 추진한다.

개발업체 수요, 이동통신 진화 방향, 수출지역 시장성 등을 고려해 장비 구축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기업 장비와 교차 사용 추진하고, 이와 함께 무선통신신기술 적용 시범사업, ODA(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해 모바일 응용서비스 시스템의 수출 촉진한다.

소비자의 이용형태 등을 토대로 모바일시장의 중장기적 진화방향을 연구하는 민官 공동의 「미래 모바일 산업 리서치랩」(가칭) 구축한다. 삼성, LG 등은 디자인과 기술 위주로 2~3년 정도의 단기적인 예측만 수행한다.

정책연구(모바일의 사회적 영향 분석 등)와 기술연구(단말 진화방향 제시 등) 병행한다. 산업디자인, 소비심리학, 감성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한 학제간 협력연구 실시한다.

연구결과를 신제품 개발, 역기능 해소, 이용문화 개선 등에 활용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변화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모바일 산업 관련 산학연 공동의 즉각적인 대응시스템 구축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에 대책반 설치 및 「모바일 산업 포럼」 구성·운영('10.3월)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가칭) 「모바일산업협의회」 설치한다.

모바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서, 모바일 기기 유통구조 합리화를 들 수 있다.

아이폰처럼 모바일 기기가 무선통신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의 모델로 유통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필요하다. 소비자 구매선택권 보장, 다양한 기기 개발 촉진, 응용SW 개발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 기대된다.

유무선 통합 서비스 시대에 맞는 제도 마련이다. 무선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유선/무선통신 간 구분을 없

애고, 통합 환경에 의한 서비스 경쟁 체제를 구축 필요하다.

다양한 유무선 통합 기기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촉진, WiFi 등 통신인프라 투자 활성화, 실질적인 요금 인하 등의 효과 기대된다.

경쟁 촉진을 통한 신기술 테스트베드 기능 회복이다. 방송사, 네트워크장비 제조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 MVNO 등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출현하여 신기술 융합서비스 개발 촉진해야 한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란 파수, 무선망 등 자체 인프라 없이 이동사업자의 인프라를 빌려 각종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마련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과도한 ActiveX 사용,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 등 국제적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 존재한다.

\* 화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MS에서 제공하는 SW로 이를 사용한 홈페이지는 MS의 인터넷브라우저(IE)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

모바일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신규 응용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이러한 각종 걸림돌 발굴·해소 필요한 것이다.

